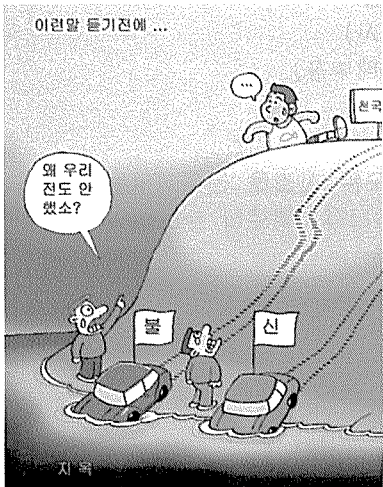


김성국

또 한해를 맞습니다.
 목사로 살아온 지 어언 20년이 됩니다.
 연륜은 쌓이는데 지나쳐 온 거리만큼 점점 희미해지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월초하루를 산속 기도원 냉한 마루에 앉드릴 줄 알았던 그때의 열정이 식어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양들을 돌봐야 하는 사명에 열심히 사람을 쳐다보다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우들을 위한 말씀만 선택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자꾸 감추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다가 명예가 멍에 되어 마음 없는 위선의 몸짓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건드리는 설교하면 부담 느껴 다음주일에 안 오면 어쩌냐는 생각으로 대언자의 소임을 접어가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교회당을 채우겠다는 결심이었는데 숫자 생각하는 나를 보고 이전 놀라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끝맛이어야 한데 주일 설교 본문 찾는 조바심에 입맛도 잃은 채 성경 뒤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교인들의 아픔을 듣고는 잠 못 이루는 목회양심은 남아있어 그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도의 아픔이 더 이상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목회를 그만 두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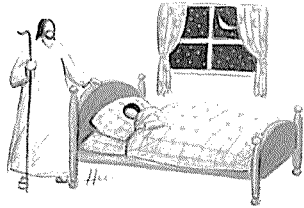


◀그림 말씀▶ 이런 말 듣기전에....
 “ 왜 우리 전도 안했소?”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히4:12-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10권 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8년 1월 20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혼자 바들바들하며 살아온 내가 불쌍"

이어령(전 문화부 장관)



최근 기독교에 귀의해 세례를 받은 이어령(73) 전 문화부 장관이 신앙인으로 느낌과 심경을 케이블·위성 채널인 CBS TV에 출연, 고백했다.
 이 전 장관은 CBS TV의 '영화감독 이장호, 누군가를 만나다'에 나와 기독교인이 된 후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고 밝혔다.

세례를 받던 순간의 느낌을 묻자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다. 가장 사랑하는 내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옹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며 기독교에 귀의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성과 천국이 있는 문지방에서 지금까지 전력투구한 삶과 마지막 나를 던지는 처절한 도전 앞에서"고 덧붙였다.

세례 후 가장 크게 바뀐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예로 들며 "세례받기 전까지 나는 토끼 인생이었다. 나는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거북이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었는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변화다"고 말했다.

◀말씀 따라 행하기▶
 마지막 나팔 소리 듣기 한 시간 전
 그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지금 절대로 하지 말자.

◀인품 따라 행하기▶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타인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37장	다 같이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185장	다 같이
기 도 Pray		이규임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일서 3:16-24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사랑은 실천하는 것	최봉석 목사
찬 송 Hymn	338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특 송	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7기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 250 총액:\$ 416,972.74

갈보리 성경 100독: 1 독 : 고대아 권사. 눈도 안 좋으신데 20일만에
이룬 완독, 빛나는 영혼의 눈빛이십니다

◆1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주차안내	안 내
6	유승재	서재오	현관:박정자 오지영
13	이광희		Hall 입구: 정희자 권광순
20	이규임	최현철	
27	임병숙	황준직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1월의 교회력◆

	주일 & 예배	모 임
6	신년예배	
13		
20	간증예배	
27		구역 상견례 수요예배 시작(30)

『2008 신앙생활』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 올 해 교회표어는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입니다.
(1)성경 1번 완독하기 (2)성경읽으며 은혜로운 구절에 밀줄치기
(3)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 교우소식
*<열공!> 김창식 집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LA)에서의 마지막 학기 수업을 위
해 오늘 떠납니다.
- 오늘말씀 전해주시는 최봉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리집사 추가명단: 김홍구 집사(윤경례 집사)
- 수요예배를 금주까지 방학합니다.
- <모임> 예배 후 “권사, 예배안내부” 모임 . 아동부 실
- 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1기 마침
*김교섭. 김선화. 박은경. 안은주. 임병숙. 정혜숙. 정희자. 현석호
성경읽고 기도했던 헌신들은 분명 우리의 성전 모퉁이 돌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 『성전건축을 위한 남성토요기도모임 2기(5회)』 첫 번째 기도모임
<일시> 26일(토) 저녁 7:30분. 사무실 <인도> 현석호 집사
*2기: 경덕현. 박병민. 안정실. 유승재. 이광희. 이동술. 정관영. 최득수. 현석호
의자 한 개 더 놓아질 수 있는 비좁은 곳, 그래서 무릎 맞대고 기도하게 되
어 더 의지와 힘이 됩니다.
- 새로운 구역편성. 은혜로운 구역예배와 교제의 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식구 상견례를 위한 구역별 식사파티 <일시> 다음주일 예배 후
<진행> 백제성 집사(교회력 부장). <장소> 교회옆 Park
*예배 후 인도자 부부 모임을 갖습니다(본당: 백제성 집사)
- 습득물품, 분실물품 접수와 문의 <담당> 현석호 집사(예배부장)
*그동안 습득된 물품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금요새벽기도회 <금요일 새벽 5:50분>
*0.1초라도 빠르게 출발하기 위해 심판의 총소리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육상선수. 우리도 2008년은 365번의 출발 기회가 있습니다. 빠르냐 늦느냐가
자신의 삶을 다르게 연출합니다.

◀한 줄로도 긴 생각▶

타향의 더운 1월, 고향의 추운 1월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의 간격

- 김성국 -

